

서울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모델 개발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0. 10. 7.

서울시가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사업과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 중 개선이 시급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민체험단의 진단과 분석을 거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대문구 전농1동의 화목경로당은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이 이뤄진 첫 사례로, 시설 개선의 과정을 담아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공간별 디자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접근공간

출입구와 현관 등 접근공간을 조성할 때는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도록 캐노피를 조명과 함께 설치하고, 눈에 띄는 색상의 주의사인과 차갑지 않은 재료의 안전손잡이 등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안전손잡이는 공간에 따라 수평·수직의 연속적인 설치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거실공간

거실공간에는 충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입식·좌식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파와 좌식마루를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손 기임 방지와 미닫이 방식을 적용한 수납장을 통해 안전하고 쉽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활동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돋보기 보관함을 갖춘 다용도 게시판을 설치하여 정보 인지를 도와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방공간

식사를 준비하고 조리할 때 여러 어르신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하향식 리프트 선반과 인출식 하부장을 적용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위생공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세면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좌변기·세면대 등에 맞춤형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며, 여분의 휴지·수건을 이미 알고 있는 보관함에 넣어 두고, 화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냉온수 주의사인을 해 놓으면 이용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후 경로당 외관(상),
출입구에 적용된 낙상방지, 인지색상 전용 계단(중),
입식기구와 좌식마루, 게시판 등을 갖춘 거실공간(하)